

코로나 민심 '거대 여당' 선택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자들이 압승했다. 1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당에서 당선자들과 지지자들이 박수치며 환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광산을 민형배·동남갑 윤영덕·동남을 이병훈·서구갑 송갑석·북구를 이형석·광산갑 이용빈·광산을 민형배 후보들이 당선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단독 과반 넘어 역대급 승리 ... 호남 28석 중 27석 휩쓸어

황교안 통합당 대표 사퇴 ... 당선자 못 낸 민생당 최대 위기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만이다.

이에 따라 집권 중반을 맞이한 문재인 정권은 안정적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검찰·사법개혁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개혁정책과 관련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보진영의 승리로 차기 민주정부 재창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명실상부한 중간선거 성격의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주장해 온 미래통합당은 연이은 참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황교안 당 대표가 이날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향후 보수 진영 전반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대 양당으로 쏠리고, 지역별로도 지지 정당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은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16일 오전 12시 10분 현재 지역구 개표율 68.7%를 보인 가운데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57곳에서, 통합당 후보가 91곳, 무소속 후보 5곳에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뒷발' 호남을 석권할 뿐 아니라 영남에서 교두보를 굳건히 지키고 충청·강원에서도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며 원내 1당을 굳건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대구·경북(TK)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돼 지역주의 벽이 더욱 견고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경기 고양갑 선거구에서 심상정 후보만이 미래통합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고, 민생당 후보들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17%를 기록한 가운데 미래한국당 35.19%, 더불어민주당 33.15%, 정의당 8.61%, 국민의당 6.17%, 열린민주당 4.95%의 득표율을 올렸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18석 전체를 민주당이 휩쓸었다. 애초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던 광주 북구갑에서도 민주당 조오섭 후보가 무소속 김경진 후보를 따돌렸다. 목포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김원이 후보가 '정치 9단'인 민생당 박지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처럼 광주·전남·전북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문재인 정부

■ 광주·전남 당선자 명단

지역구	당선자	소속정당
동남갑	윤영덕	민주당
동남을	이병훈	민주당
서구갑	송갑석	민주당
서구를	양항자	민주당
북구갑	조오섭	민주당
북구를	이형석	민주당
광산갑	이용빈	민주당
광산을	민형배	민주당

◆ 전남

목포	김원이	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민주당
여수을	김희재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민주당
나주화순	신정훈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민주당
보흥고성장흥강진	김승남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민주당

의 개혁 성공과 차기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한 호남 민심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선거 성격의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패배하면서 황 대표가 이날 총선 참패의 책

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사실상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독식할 것으로 보이면서 진보정당 및 군소정당들이 설 자리를 잃고 존폐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4·15 총선 투표율은 66.2%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399만 4247명 가운데 2912만 804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66.2%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마의 60%' 벽을 넘어섰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상회한 것은 지난 17대 총선(60.0%) 이후 16년만이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높은 수준의 방역,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안정적 정착 등도 투표율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68.6%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65.9%, 전남은 67.8%로 집계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힘 받았다

코로나 2차 추경 탄력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가 확실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2년의 임기 동안 별다른 차질 없이 국정 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야당과 합의 없이도 단독으로 예산안 및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도 여당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법안 통과와 국회 운영이 예상된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예정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협상 우위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7월)도 속전속결

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과반 의석 확보에 따라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대야소의 흐름을 타고 레임덕(권력 누수)에 대한 우려 없이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총선 이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집계에 빠진 경제 살리기 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없이 코로나 19 대응 및 총선 이후 국정 운영 구상 등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4·15 총선 특집 지면 안내

- 광주·전남 당선자 각오 ▶2면
- 예고된 압승 ... 문재인 승리 ▶3면
- 지역 정치권 세력·세대교체 ▶4면
- 화제의 당선자·적전지 당선자 ▶5-6면
- 광주·전남·전북 당선자 얼굴 ▶7면
- 명암 엇갈린 여야 집중들 ▶8면
- 경제계 "당선자에 비란다" ▶14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